

‘서민경제 안정화’ 취지 무색 예산 줄줄이 편성

도, 생계안전망 강화 반영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공연장 운영’ 등 기조와 무관한 예산 무더기 편성
불요불급 예산 삭감 불가피... 도의회 갈등도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화 지원 등에 역점을 두는 내용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이와 무관한 예산들이 무더기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주도의의회에 제출하면서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고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골목상권과 1차산업의 내수 진작,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재정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의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17일 통합심사를 앞두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예산 편성기조와 무관한 예산들이 줄줄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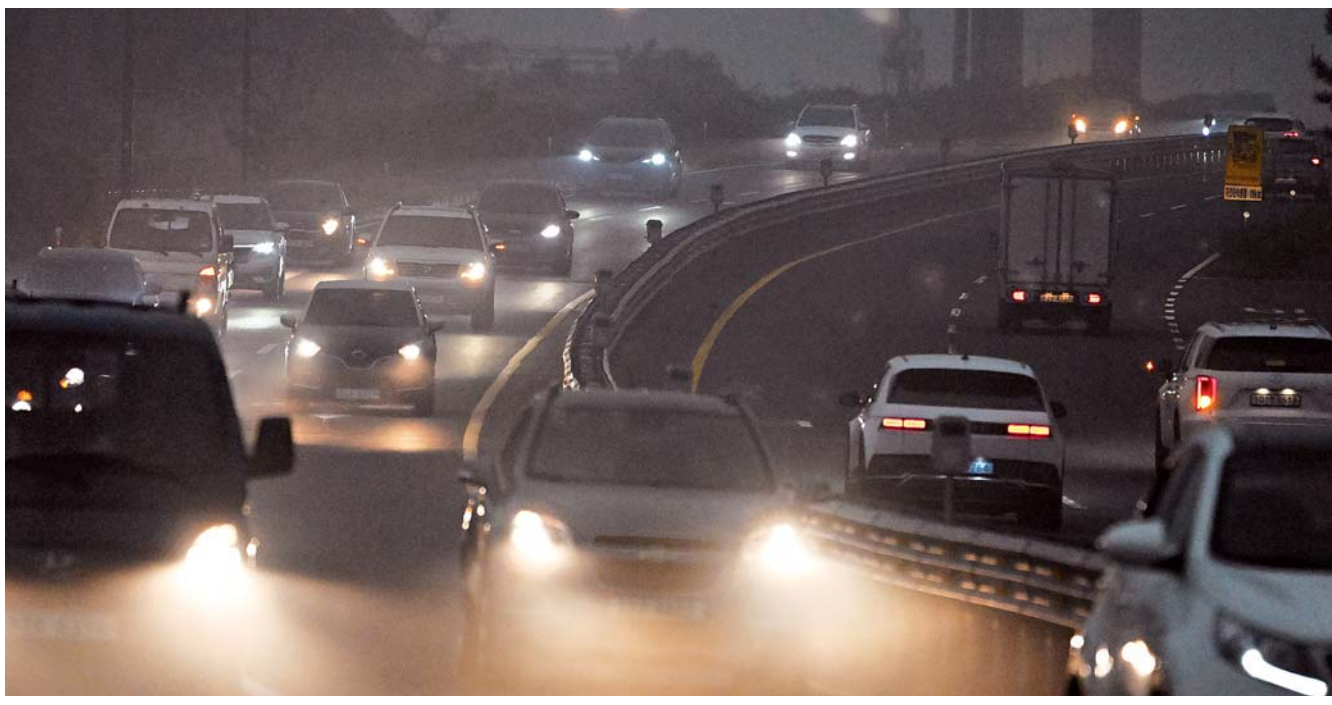
이에 따라 도의회 5개 상임위 예산 삭감에 이어 추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관광분야 예산인 경우 기정액 보다 202억1000만원(6.02%) 증액된 3560억8700만원을 편성했으나 중화권 홍보마케팅 사업 7억원, 제주 관광 콘텐츠 해외홍보 사업 3억원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민경제 안정화와 무관한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비 89억원 등 시설비로 512억70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행정사에서 편성한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해야 함에도 예산 편성 전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 3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제1호 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적정성 시비로 인해 고향사랑기부금운용심의회에서 ‘제주해안쓰레기줍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변경하고 이번 추경안에 시설비 4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특히 제주문화예술회관 기관운영 출연금 14억6500만원, 공연장 운영비 1억2200만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2억원, ‘무오법정사 향일운동 다큐 제작 3억원(영상촬영 2억원·편집비 8000만원·영상배포 2000만원)’ 등 서민경제 회생 지원과 무관한 예산들이 무더기 편성됐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가 15일 오전 집무실에서 진행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당당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고, 의회 지적사항은 충실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으나 예산 편성기조에 맞지 않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대로그 기자



칠혹같이 어두운 평화로 15일 오전 평화로에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칠혹같은 어두운 날씨를 보이자 이동중인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송악산 사유지 매입 ‘제동’... 도, 즉각 반박

옛 송악산유원지 부지매입 도의회 상임위서 심사보류
도 “사유재산권 행사·국제소송 등 우려... 파장 커질 것”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해 제주도가 제출했던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의의회가 제동을 걸자, 제주도가 ‘국제소송 제기’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 파장 등이 우려된다고 즉각 반박했다.

제주도는 15일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통국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심사보류 결정으로 공유재산 매입 동의를 불확실해짐에 따라,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또 “투자자 소유토지

는 총 170필지·40만0748㎡으로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를 갖고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 시 지역주민 및 관광객 통행제한 등 불편과 경관 사유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불쾌감을 내비쳤다. 오 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진행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가 심사보류한 사안을 언급하며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도의회에서 두세 차례 설명이 이뤄졌고,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

에서 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의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송악산 일대 난개발 예방 및 경관사유화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소송 및 국제투자분쟁 해소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확보 계획과 토지매입 이후 활용 방안 등의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남은 회기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대해기자

우리동네 범죄예방시설
주민의견 반영 설계·설치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 주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우리동네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시설 설치 지역 선정’ 공고를 통해 접수된 3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거쳐 3월 2곳을 최종 확정했다.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시설 설치할 두 곳 중 A지역의 주민들은 “밤에 골목길이 너무 어두워 불안하고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길 역시 정비가 되지 않아 위험하다”며 신청했다.

또한 B지역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돼 야간에 위험을 많이 느끼고 주택도 형태나 위치가 불규칙적이어서 조명 범위에서 벗어나는 어두운 사각지대가 많다”고 신청사유를 밝힌 곳이다.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13일 제주도 소통협력센터에서 첫 간담회와 교육의 자리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해소방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민 A씨(45세, 여)는 “야간에 통학로가 너무 어두워 항상 사고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막상 시설 개선을 요청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해 업무가 나질 않았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자리가 마련이 돼 고맙고 안심이다”고 말했다.

김동하 생활안전팀장은 “주민 체감형 범죄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우리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전문가”라며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6~7월쯤 공공디자인 심의, 하반기에 시설 설치를 거쳐 주민 만족도 조사와 범죄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 성과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대로그 기자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업 적발... 4면 / 정의현성 이설 600주년... 9면

한라일보 창간 34주년을 축하합니다

여행에 빠지다!

제8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2023. 8. 11(금) ~ 8. 14(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

참가신청 마감일 - 6월 30일(금)

참가문의 : 02.3785.3905

주최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서울신문
주관 (사)한국전시산업협회

KITS KOREA International TOURISM SHOW 2023
1983년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